

사탄의 무릎을 꿇리는 지극히 선한 선택

- 복음으로 여는 빌립보서 -

사무엘상24:8-18, 빌립보서1:9-11

정윤돈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깨닫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영혼의 귀와 눈이 열려서 복음이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틀로 나의 모든 옛 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단이 무릎을 꿇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날마다 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고자 한다. 빌립보서는 사도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갇혀있는 감옥이 아니라, 학자들이 말하기를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글을 쓴 것이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의 이름인 빌립이라는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빌립보는 남쪽 아가야 아테네같은 도시보다 무식한 지역이었다. 무식하지만 힘이 세서 마케도니아에서 힘을 키워서 아버지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좋은 문화나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은가.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는데 어떻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정복했는가. 아버지에 의해 군사력 같은게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이 활동 했던 그 당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유립의 첫 성이 빌립보였다. 교회를 설립하게 됐는데 첫 번째 기도처에 가서 만났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성 산업인이었다. 그리고 점쟁이를 고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찬양을 하는 것이다. 그 모습을 간수장이 보았다. 그러던 중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간수장은 자살하려고 했다.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 생각해봤더니, 아마 간수장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바울 일행은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간수장인데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을 안 가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듯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이다. 사도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된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답하는 것이다. 자살하려는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해서 팀을 이루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는 대표적인 교회였다. 그래서 이 지역은 물질, 지식이 풍부한 대도시였다. 그런 사명자들과 증인들의 팀 형성의 응답을 주셨다. 데살로니가, 로마에 선교헌금을 보내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했던 교회가 빌립보교회였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빌립보교회 안에서 중요한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빌립보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의 안부를 전하는 것과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해준 빌립보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1.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과 빌립보서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빌립보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였지만 사탄의 틀과 울무와 함정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1)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다.

①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두 여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 체질이 복음으로 안 바뀌는 것이다. 내가 언약하고 내 그릇이 작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이 부분을 바꿔야지.’ 생각해야 한다. ‘내가 이것이 문제구나. 갱신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한 번만 생각해도 달라진다.

② 자신들의 지식과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리스 지역인데 지식과 철학에 뛰어난 유대인, 헬라인들이 모여있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박사도, 대통령도, 대기업총수도 자신의 모든 배경과 지위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로마의 시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바울은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용병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살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고 공약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장군들이 로마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이다.

④ 이러한 몇 가지 문제의 결과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행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도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니깐 간수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질문하지 않았는가. 이런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기를 바란다.

(2) 다음은 빌립보서의 의미와 특징이다.

① 빌립보서는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인관관계와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를 강조한다. 사도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이야기가 없다. 교리적으로 사도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믿었다. 그런데 자신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은 것이다. 인격적으로 삶은 성숙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안 바뀌는 것이다.

②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자신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갈라디아는 초창기에 썼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고린도 교회에게도 ‘너희가 헌금 약속했으니 헌금 해야지.’ 이야기한다. 그러나 빌립보서에는 모든 것을 돌려서 이야기한다. 그만큼 사도바울이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빌립보서는 말씀성취와 기도응답의 증거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응답을 받고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쓴 것이다.

④ 로마 감옥에서도 끝까지 성도들과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바울의 목자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 것이다.

2. 다음으로는 빌립보서 안에 담겨진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겠다.

사도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이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을 하기까지의 사도바울의 성숙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과거에 사도바울은 잘못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싸우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희들이 갈등하고 싸우지만, 너희 안에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도제목으로 붙잡은 것이다.

(2) 바울은 빌립보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빌립보서 1장 9절-10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램넛트 7명은 항상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하였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다. 우리도 비난하고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 살리는 빛의 대열에 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틀로 여러분의 옛 틀을 바꾸기를 바란다.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지식도 없다. 너희는 명청해. 지금은 황폐해져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셔서 이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것이다.

(3)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결론이다. 문장 안에 전도자의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4)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도 수용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바울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하였다. 또한 로마의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속에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18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5)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가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을 보겠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반복한다. 왜 같이 사랑하지 않으며 한 마음을 품지 않으시는 것이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가 다 맞다고 하니까 겸손할 수 없는 것이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음은 2장 5절-8절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도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살라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중심을 그리스도로 거둬나케 하지 않으면 새 틀을 바꾸지 않으면 맞지 않아서 갈등생기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오직 예수라고는 말은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불만, 불평과 같은 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이다.

(6) 전도자의 삶이란 진정한 할레파가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진정한 할레파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레파라.'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 이야기하는 것이다.

(7) 참된 그리스도인은 유익한 것도 복음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7절-9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자랑할 것이 많지만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모습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소중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8)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끝임 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 도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쫓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3천 제자를 향한 교회, 우리 교회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교회,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교회를 향해 가는 것이다. 전도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은 다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지는 것이다. 빌3장 13절-14절 말씀을 보겠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9)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탄은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0) 빌립보서 4장 8절-9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빌립보교회를 향하여 전도자의 삶의 최종 목표를 명령하고 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

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소중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목표를 두게 되면 결국엔 응답을 받게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약간 자랑한다. 빌립보서 4장 9절이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1) 사탄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사도바울은 고백하고 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13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교회가 경제적으로 도와줬는데 '너희들에게 감사해.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교만할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로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희를 풍성하게 응답을 주실거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 드린다.

오늘도 빌립보서에서 우리들의 CVDIP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1. 첫 번째는 Covenant 언약이다

빌립보서에서 붙잡을 가장 중요한 언약은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로 발견하니 세상 모든 자랑거리가 배설물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한다. 그리스도가 최고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 안에 다 있다. 그렇다고 책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웃음) 그리스도로 결론 낸 다음에 도전하라.

2. Vision 비전이다.

빌립보교회는 사도바울팀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큰 후원자의 역할을 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세계 237나라를 살리는 일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 사역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축원한다.

3. Dream 꿈이다.

사도바울은 감옥에서도 24시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다.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때, 꿈을 이루는 시간표가 앞당겨 질 수 있다. 근심하고 염려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근심과 염려는 꿈과 멀어지게 한다. 기뻐하라. 감사도 기쁨도 습관이다. 자꾸 감사하다보면 그렇게 보인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최종적인 제자의 모습이다. 사도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쁨을 고백했다.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는 기쁨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빌립보서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이미지가 그려진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단 한두번 질문만 해도 달라진다. 진정한 질문을 하기를 바란다.

5. 마지막으로 Practice 실천이다.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해야겠다. 오직 복음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최고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 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합한 모습이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거듭나고 변했던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듭났던 것처럼, 틀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